#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본 적이 없다

## (로마서 4:1~25)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본 적이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읽지 않은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목을 보충해보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약속하신 그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견고하게 믿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뜻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본 적이 없다"라는 제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에 대해 생각해보며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확증하고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본문 전체를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이유는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 아닌 믿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할례의 언약이 주어지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선민 유대인이 할례를 내세우며 구원과 영생의 조건으로 고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태가 구원을 얻은 상태이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급만을 보자면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과 창세기의 언급을 같이 보면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창세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기에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 있느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3절이 본문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창세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

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이후의 말씀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본문 20~22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7장 15~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결코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백 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습니다. 당연히 사라의 월경은 이미 끝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엎드려 웃었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약속 대신 이미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태어날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통해

서나 이루시면 되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해석한 것일까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오리지널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따로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와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열쇠가 없다면 창세기와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제공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놓치면 창세기와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은 모두 틀렸다고 보아도 잘못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이해하는 구약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선민 역사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부분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연관된 모든 언급에 대한 출발점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설교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을 주도한 자는 바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이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붙

잡고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염두에 둘 때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는 오해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기록된 장면을 사도 바울은 왜 믿음으로 기록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기에 앞서 본 로마서 3장 23~24절을 떠올려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속량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획기적인 설교로부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비교해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관점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사건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으로부터 구약 전체를 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뒤의 사람이기에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감은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세상이 꺼지고 암흑으로 변하면서 마음에서는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꺼지는 밤이 되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안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안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본다면, 아브라함은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의 표현이 번제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의 번제는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미 성전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번제의 내용은 곧 예수님의 죽음이며 나와의 동일시입니다.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릴 때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죽음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돌아가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음이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의식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은 무엇인가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감에서 일등을 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만족감을 위한 좋음에서 하나님이 일등을 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의식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식과 마음에서 일등을 하시게 된 상태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억으로 관계하느냐 기대로 관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만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구절은 창세기와 로마서에서의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 이후에 3절의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점을 붙잡지 못하면 창세기와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갑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 사라를 이방 왕들에게 내어준 것을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수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출발점을 놓친 상태에서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적어도 창세기의 기록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흠이 없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심지어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감히 보일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네가 나의 전능함을 의심하느냐"라고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듯이 당신의 계획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본문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여 결혼까지 약속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을 앞둔 아가씨에게 미래의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 것이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머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합니다. 아가씨도 이러한 약속을 하는 남자친구에게 수긍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가씨의 귀에는 이러한 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약속이 아닌 남자친구입니다. 그저 남자친구가 좋고 사랑스럽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를 받아들이면 약속은 보너스처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씨는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친구 자체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백 세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출발점을 보존하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

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 본문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언급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음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미래와 영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에 있을 영광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아가씨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약속하시든지 그것은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더라도 약속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내용을 믿었다면 영광스러워질 자기의 미래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약속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번도 약속을 의심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과 의심은 서로 반대지만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식과 마음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일등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내용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출발점을 근거로 삼을 때에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17장에서 백 세에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반응한 이야기는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약속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약속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 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식 밖의 약속을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의식에서 하나님의 존재감만이 일등이었고, 마음에

서는 하나님의 좋음만이 일등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백 세에 아들을 낳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부정적인 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웃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좋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저의 문제로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본 적도 없고 약속을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출발점을 창세기와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언급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식하거나 마음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로마서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붙잡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계획을 약속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거나 잊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의식과 마음에서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어떤 계획을 마주할지라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

옵소서. 세상의 밤이 임한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영광의 아버지만을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